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SEPTEMBER 09
2025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믿음의 유산을 차지하는 자들 [여호수아]



예수님의 리더십을 생각하며



독일 태생의 유명한 유대인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은 1941년, 그러니까 2차 대전 발발 초기에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 (Escape from Freedom)”란 책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아니라 독일인들이 민주주의 투표로 선출한 사람이다. 왜 독일인들은 나라를 멸망으로 몰고 갈 그런 무서운 독재자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독일인들이 자유를 누릴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1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후, 이런 파괴적인 전쟁을 일으킨 것은 황제 중심의 절대 군주제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바이마르 민주공화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 체제는 전후 독일이 직면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 대공황을 헤쳐 나갈 수 없었고, 이에 불안해진 사람들은 다시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독일인들뿐 아니라 인간은 항상 정치적으로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편으론 모든 권위에 저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오는 탕자 본능이 있지만, 그러다가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다시 어떤 강한 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스려주길 바랍니다. 극단적 포퓰리즘과 절대 독재체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혼돈의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미디안 침략에서 구해낸 전쟁영웅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그 청을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레 놓고 기드온은 왕이 누릴 수 있는 돈과 명예를 누립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사후에 백성들은 극한 우상숭배로 빠져들면서 타락합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사람을 은근히 교만하게 만듭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안 변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항상 올라가면 무의식적으로 목에 힘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백성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늘 하나님 앞에 앞드린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겉으로 보이는 예법이 아닙니다. 겸손은 온유하신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염되는 성품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자기를 비취볼 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리더가 됩니다. 그는 이기적인 욕심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통치하지 않을 것이며,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면서도 그는 자신을 바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 지도자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처럼 기대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그 기대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권위주의에 저항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해서 다시 민주주의를 빙자한 독재자에게 열광하는 모순을 되풀이합니다. 동서양의 모든 정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예수님 같은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정치가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한홍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믿음의 유산을 차지하는 자들 [여호수아]



2025.
09

SAEROUN

QT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1	1	2 약속의 땅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8/26-9/13	3
7	8	9	10
창립 16주년 기념 주일 새가족 129기		9-12 공동체 개강예배	
14	15	16	17
12-14 청년1부 수련회		마더와이즈 개강	
21	22	23	24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 19-21 청년2부 수련회			
28	29	30	1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10/7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	5	6	
에버그린스쿨 개강		순장 훈련 개강	
11	12	13	
	12-14 청년1부 수련회		
9-12 공동체 개강예배			
18	19	20	8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5	26	27	10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3	4	

2025.
09

1	월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으심을 후회하셨더라	삼상 15:10-23
2	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다	수 3:9-17
3	수	길갈의 열두 돌 1	수 4:1-14
4	목	길갈의 열두 돌 2	수 4:15-24
5	금	언약 백성의 회복, 할례와 유월절	수 5:1-12
6	토	너는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	수 5:13-15
7	주일	[창립 16주년 기념주일] 이제 역전되리라	삼상 2:7-9
8	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알게 하리라	단 4:28-37
9	화	여리고 성 공략 1	수 6:1-9
10	수	여리고 성 공략 2	수 6:10-21
11	목	아이 성 앞에서의 패배	수 7:2-9
12	금	아간의 범죄	수 7:1 & 10-15
13	토	아이 성 재공략	수 8:1-9
14	주일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릴지니	출 35:4-5 & 20-29
15	월	모든 것을 드린 예배자	막 12:41-44
16	화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 앞에 서다	수 8:30-35
17	수	기브온과의 속임수 언약	수 9:1-15
18	목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	수 9:16-27
19	금	태양아 머무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수 10:1-14
20	토	하나님의 손에 넘겨진 대적들	수 10:16-21
21	주일	계속되는 악순환	삿 10:1-16
22	월	공회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 6:1-11
23	화	남쪽 왕들을 정복하다	수 10:29-43
24	수	북쪽 연합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수 11:1-15
25	목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수 11:16-23
26	금	다음 세대에게 주는 속제	수 13:1 & 14:2-5
27	토	갈렙의 믿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 14:6-15
28	주일	길르앗의 용사 입다	삿 10:17-18 & 11:1-28
29	월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전 1:26-31
30	화	믿음의 유산을 차지하는 자들	수 15:13-19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01

월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으심을 후회하셨더라

삼상 15:10-23

- 10 여호와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11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 12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 14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 15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 1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십시오

- 17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 18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 19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 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 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다

수 3:9-17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하고 Joshua said to the Israelites, "Come here and listen to the words of the LORD your God.

10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This is how you will know that the living God is among you and that he will certainly drive out before you the Canaanites, Hittites, Hivites, Perizzites, Girgashites, Amorites and Jebusites.

11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Se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of all the earth will go into the Jordan ahead of you.

12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Now then, choose twelve men from the tribes of Israel, one from each tribe.

13 온 땅의 주 여호와와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And as soon as the priests who carry the ark of the LORD—the Lord of all the earth—set foot in the Jordan, its waters flowing downstream will be cut off and stand up in a heap."

14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So when the people broke camp to cross the Jordan, the priests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went ahead of them.

15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Now the Jordan is at flood stage all during harvest. Yet as soon as the priests who carried the ark reached the Jordan and their feet touched the water's edge,

16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the water from upstream stopped flowing. It piled up in a heap a great distance away, at a town called Adam in the vicinity of Zarethan, while the water flowing down to the Sea of the Arabah (that is, the Dead Sea) was completely cut off. So the people crossed over opposite Jericho.

17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The priests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stopped in the middle of the Jordan and stood on dry ground, while all Israel passed by until the whole nation had completed the crossing on dry groun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길갈의
열 두 돌 1

수 4:1-14

- 1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 3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 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 5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 6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 7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와 언약 궤 앞에서 끓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끓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 8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 9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둘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 10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 11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와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 12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 13 무장한 사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 14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4

목

길갈의
열 두 돌 2

수 4:15-24

믿음의 유산을 차지하는 자들 [여호수아]

약속의 땅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Promised
Land

15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16 증거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Command the priests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law to come up out of the Jordan."

17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So Joshua commanded the priests, "Come up out of the Jordan."

18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 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And the priests came up out of the river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No sooner had they set their feet on the dry ground than the waters of the Jordan returned to their place and ran at flood stage as before.

19 첫째 달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 치매

On the tenth day of the first month the people went up from the Jordan and camped at Gilgal on the eastern border of Jericho.

20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And Joshua set up at Gilgal the twelve stones they had taken out of the Jordan.

2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He said to the Israelites, "In the future when your descendants ask their parents, 'What do these stones mean?'

22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tell them, 'Israel crossed the Jordan on dry ground.'

23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For the LORD your God dried up the Jordan before you until you had crossed over. The LORD your God did to the Jordan what he had done to the Red Sea when he dried it up before us until we had crossed over.

24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와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He did this so tha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might know that the hand of the LORD is powerful and so that you might always fear the LORD your Go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언약 백성의 회복, 할례와 유월절

수 5:1-12

믿음의 유산을 차지하는 자들 [여호수아]

약속의 땅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Promised
Land

- 1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 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 2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 3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 4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 5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 6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사십 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 7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 8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 9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 10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 11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 12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수 5:13-15

- 13 여호수아가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Now when Joshua was near Jericho, he looked up and saw a man standing in front of him with a drawn sword in his hand. Joshua went up to him and asked, "Are you for us or for our enemies?"

- 14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Neither," he replied, "but as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I have now come." Then Joshua fell facedown to the ground in reverence, and asked him, "What message does my Lord have for his servant?"

- 15 여호와와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The commander of the LORD's army replied, "Take off your sandals,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And Joshua did so.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7

주일

이제
역전되리라

삼상 2:7-9

- 7 여호와께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The LORD sends poverty and wealth; he humbles and he exalts.

-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He raises the poor from the dust and lifts the needy from the ash heap; he seats them with princes and has them inherit a throne of honor. "For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re the LORD's; on them he has set the world.

- 9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He will guard the feet of his faithful servants, but the wicked will be silenced in the place of darkness. "It is not by strength that one prevails;

08

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알게 하리라

단 4:28-37

28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30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32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 바로 그 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34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 그 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리고 성
공략 1

수 6:1-9

- 1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Now the gates of Jericho were securely barred because of the Israelites. No one went out and no one came in.

- 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See,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s, along with its king and its fighting men.

- 3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 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March around the city once with all the armed men. Do this for six days.

- 4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 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Have seven priests carry trumpets of rams' horns in front of the ark. On the seventh day, march around the city seven times, with the priests blowing the trumpets.

- 5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When you hear them sound a long blast on the trumpets, have the whole army give a loud shout; then the wall of the city will collapse and the army will go up, everyone straight in."

- 6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So Joshua son of Nun called the priests and said to them, "Take up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have seven priests carry trumpets in front of it."

- 7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나아갈 지니라 하니라

And he ordered the army, "Advance! March around the city, with an armed guard going ahead of the ark of the LORD."

- 8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언약 궤는 그 뒤를 따르며

When Joshua had spoken to the people, the seven priests carrying the seven trumpets before the LORD went forward, blowing their trumpets, and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followed them.

- 9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The armed guard marched ahead of the priests who blew the trumpets, and the rear guard followed the ark. All this time the trumpets were sounding.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여리고 성
공략 2

수 6:10-21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1 여호와와 그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12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고

13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와 그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와 그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4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옛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16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18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와 그의 궤 사이에 들일지니라 하니라

20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아이 성 앞에서의 패배

수 7:2-9

- 2 여호수아가 예리고에서 사람을 베엘 동쪽 벤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Now Joshua sent men from Jericho to Ai, which is near Beth Aven to the east of Bethel, and told them, "Go up and spy out the region." So the men went up and spied out Ai.

- 3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When they returned to Joshua, they said, "Not all the army will have to go up against Ai. Send two or three thousand men to take it and do not weary the whole army, for only a few people live there."

- 4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So about three thousand went up; but they were routed by the men of Ai,

- 5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육 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되니라

who killed about thirty-six of them. They chased the Israelites from the city gate as far as the stone quarries and struck them down on the slopes. At this the hearts of the people melted in fear and became like water.

- 6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와 겹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Then Joshua tore his clothes and fell facedown to the ground before the ark of the LORD, remaining there till evening. The elders of Israel did the same, and sprinkled dust on their heads.

- 7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And Joshua said, "Alas, Sovereign LORD, why did you ever bring this people across the Jordan to deliver us into the hands of the Amorites to destroy us? If only we had been content to stay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 8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Pardon your servant, Lord. What can I say, now that Israel has been routed by its enemies?

- 9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The Canaanites and the other people of the country will hear about this and they will surround us and wipe out our name from the earth. What then will you do for your own great nam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Promised
Land

아간의
범죄

수 7:1 & 10-15

- 1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But the Israelites were unfaithful in regard to the devoted things; Achan son of Karmi, the son of Zimri, the son of Zerah, of the tribe of Judah, took some of them. So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Israel.

- 1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The LORD said to Joshua, "Stand up! What are you doing down on your face?"

- 11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 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Israel has sinned; they have violated my covenant, which I commanded them to keep. They have taken some of the devoted things; they have stolen, they have lied, they have put them with their own possessions.

- 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That is why the Israelites cannot stand against their enemies; they turn their backs and run because they have been made liable to destruction. I will not be with you anymore unless you destroy whatever among you is devoted to destruction.

- 13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Go, consecrate the people. Tell them, 'Consecrate yourselves in preparation for tomorrow; for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There are devoted things among you, Israel. You cannot stand against your enemies until you remove them.'

- 14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뵙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뵙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뵙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In the morning, present yourselves tribe by tribe. The tribe the LORD chooses shall come forward clan by clan; the clan the LORD chooses shall come forward family by family; and the family the LORD chooses shall come forward man by man.

- 15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뵙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와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Whoever is caught with the devoted things shall be destroyed by fire, along with all that belongs to him. He has violated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has done an outrageous thing in Israe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아이 성
재공략

수 8:1-9

- 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Take the whole army with you, and go up and attack Ai. For I have delivered into your hands the king of Ai, his people, his city and his land.

- 2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돌지니라 하시니

You shall do to Ai and its king as you did to Jericho and its king, except that you may carry off their plunder and livestock for yourselves. Set an ambush behind the city."

- 3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So Joshua and the whole army moved out to attack Ai. He chose thirty thousand of his best fighting men and sent them out at night

- 4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with these orders: "Listen carefully. You are to set an ambush behind the city. Don't go very far from it. All of you be on the alert.

- 5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 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I and all those with me will advance on the city, and when the men come out against us, as they did before, we will flee from them.

- 6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They will pursue us until we have lured them away from the city, for they will say, 'They are running away from us as they did before.' So when we flee from them,

- 7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you are to rise up from ambush and take the city. The LORD your God will give it into your hand.

- 8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와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When you have taken the city, set it on fire. Do what the LORD has commanded. See to it; you have my orders."

- 9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벰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Then Joshua sent them off, and they went to the place of ambush and lay in wait between Bethel and Ai, to the west of Ai—but Joshua spent that night with the peopl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4

주일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릴지니

출 35:4-5 & 20-29

-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Moses said to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This is what the LORD has commanded:

- 5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From what you have, take an offering for the LORD. Everyone who is willing is to bring to the LORD an offering of gold, silver and bronze;

- 2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Then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withdrew from Moses' presence,

- 21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and everyone who was willing and whose heart moved them came and brought an offering to the LORD for the work on the tent of meeting, for all its service, and for the sacred garments.

- 22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All who were willing, men and women alike, came and brought gold jewelry of all kinds: brooches, earrings, rings and ornaments. They all presented their gold as a wave offering to the LORD.

- 23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Everyone who had blue, purple or scarlet yarn or fine linen, or goat hair, ram skins dyed red or the other durable leather brought them.

- 24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Those presenting an offering of silver or bronze brought it as an offering to the LORD, and everyone who had acacia wood for any part of the work brought it.

- 25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뺨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을 가져왔으며

Every skilled woman spun with her hands and brought what she had spun—blue, purple or scarlet yarn or fine linen.

26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뿜았으며

And all the women who were willing and had the
skill spun the goat hair.

27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
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The leaders brought onyx stones and other gems to
be mounted on the ephod and breastpiece.

28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They also brought spices and olive oil for the light
and for the anointing oil and for the fragrant incense.

29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
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All the Israelite men and women who were willing
brought to the LORD freewill offerings for all the
work the LORD through Moses had commanded
them to do.

15

월

모든 것을 드린
예배자

막 12:41-44

- 41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Jesus sat down opposite the place where the offerings were put and watched the crowd putting their money into the temple treasury. Many rich people threw in large amounts.

- 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But a poor widow came and put in two very small copper coins, worth only a few cents.

-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Calling his disciples to him, Jesus said, "Truly I tell you, this poor widow has put more into the treasury than all the others.

- 44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They all gave out of their wealth;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everything—all she had to live on."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 앞에 서다

수 8:30-35

30 그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Then Joshua built on Mount Ebal an altar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31 이는 여호와와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as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had commanded the Israelites. He built it according to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of Moses—an altar of uncut stones, on which no iron tool had been used. On it they offered to the LORD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d fellowship offerings.

32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Israelites, Joshua wrote on stones a copy of the law of Moses.

33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All the Israelites, with their elders, officials and judges, were standing on both sides of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facing the Levitical priests who carried it. Both the foreigners living among them and the native-born were there. Half of the people stood in front of Mount Gerizim and half of them in front of Mount Ebal, as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had formerly commanded when he gave instructions to bless the people of Israel.

34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Afterward, Joshua read all the words of the law—the blessings and the curses—just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35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There was not a word of all that Moses had commanded that Joshua did not read to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including the women and children, and the foreigners who lived among the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기브온과의
속임수 언약

수 9:1-15

- 1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 2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 3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 4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 5 그 발에는 낱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 6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 7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 8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 9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 10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 니이다
- 11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 12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 13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 14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 15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

수 9:16-27

16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17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랴여아림이라

18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었더라

22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3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리라 하니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25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26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수 10:1-14

- 1 그 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텍이 듣고
- 2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 3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텍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 4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 5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 6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 7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 8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 9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 10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륙하고 뱀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 11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뱀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 12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 13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14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넘겨진 대적들

수 10:16-21

- 16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Now the five kings had fled and hidden in the cave at Makkedah.

- 17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When Joshua was told that the five kings had been found hiding in the cave at Makkedah,

- 18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he said, "Roll large rocks up to the mouth of the cave, and post some men there to guard it.

- 19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But don't stop; pursue your enemies! Attack them from the rear and don't let them reach their cities, for the LORD your God has given them into your hand."

- 20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So Joshua and the Israelites defeated them completely, but a few survivors managed to reach their fortified cities.

- 21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허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The whole army then returned safely to Joshua in the camp at Makkedah, and no one uttered a word against the Israelite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1

주일

계속되는
악순환

삿 10:1-16

- 1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After the time of Abimelek, a man of Issachar named Tola son of Puah, the son of Dodo, rose to save Israel. He lived in Shamir,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 2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이십삼 년 만에 죽으매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He led Israel twenty-three years; then he died, and was buried in Shamir.

- 3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He was followed by Jair of Gilead, who led Israel twenty-two years.

- 4 그에게 아들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삼십을 탔고 성읍 삼십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야일이라 부르더라

He had thirty sons, who rode thirty donkeys. They controlled thirty towns in Gilead, which to this day are called Havvoth Jair.

- 5 야일이 죽으매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When Jair died, he was buried in Kamon.

- 6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They served the Baals and the Ashtoreths, and the gods of Aram, the gods of Sidon, the gods of Moab, the gods of the Ammonites and the gods of the Philistines. And because the Israelites forsook the LORD and no longer served him,

- 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he became angry with them. He sold them into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and the Ammonites,

- 8 그 해에 그들이 요단 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who that year shattered and crushed them. For eighteen years they oppressed all the Israelites on the east side of the Jordan in Gilead, the land of the Amorites.

- 9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The Ammonites also crossed the Jordan to fight against Judah, Benjamin and Ephraim; Israel was in great distress.

- 10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
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Then the Israelites cried out to the LORD, “We have sinned against you, forsaking our God and serving the Baals.”

- 1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
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
였느냐

The LORD replied, “When the Egyptians, the Amorites, the Ammonites, the Philistines,

- 12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
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the Sidonians, the Amalekites and the Maonites oppressed you and you cried to me for help, did I not save you from their hands?

- 1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
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
리라

But you have forsaken me and served other gods, so I will no longer save you.

- 14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
신지라

Go and cry out to the gods you have chosen. Let them save you when you are in trouble!”

-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가 범
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
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But the Israelites said to the LORD, “We have sinned. Do with us whatever you think best, but please rescue us now.”

- 16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
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Then they got rid of the foreign gods among them and served the LORD. And he could bear Israel’s misery no longer.

22

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 6:1-11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8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약을 행하였느니라

10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남쪽 왕들을
정복하다

수 10:29-43

- 29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
서 립나로 나아가서 립나와 싸우매
- 30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
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
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러
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 31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립나에
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 32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
로 그것과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
으니 립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 33 그 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
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 34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
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 35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
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
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 36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
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 37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
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 38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 39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
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의 모든 사람
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
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립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 40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
겹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
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
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
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 41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 4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
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 43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
으로 돌아왔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북쪽 연합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수 11:1-15

- 1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 2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 3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 4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 5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 가에 함께 진 쳤더라
- 6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 7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 8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 9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 10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 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 11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 12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와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 13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 14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 15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수 11:16-23

- 16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 겹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So Joshua took this entire land: the hill country, all the Negev, the whole region of Goshen, the western foothills, the Arabah and the mountains of Israel with their foothills,

- 17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from Mount Halak, which rises toward Seir, to Baal Gad in the Valley of Lebanon below Mount Hermon. He captured all their kings and put them to death.

- 18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Joshua waged war against all these kings for a long time.

- 19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Except for the Hivites living in Gibeon, not one city made a treaty of peace with the Israelites, who took them all in battle.

- 20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던라

For it was the LORD himself who hardened their hearts to wage war against Israel, so that he might destroy them totally, exterminating them without mercy, as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 21 그 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At that time Joshua went and destroyed the Anakites from the hill country: from Hebron, Debir and Anab, from all the hill country of Judah, and from all the hill country of Israel. Joshua totally destroyed them and their towns.

- 22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No Anakites were left in Israelite territory; only in Gaza, Gath and Ashdod did any survive.

- 23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So Joshua took the entire land, just as the LORD had directed Moses, and he gave it as an inheritance to Israel according to their tribal divisions. Then the land had rest from wa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6

금

다음 세대에게
주는 속제

수 13:1 & 14:2-5

- 1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When Joshua had grown old, the LORD said to him, "You are now very old, and there are still very large areas of land to be taken over.

[수 14:2-5]

-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Their inheritances were assigned by lot to the nine and a half tribes, as the LORD had commanded through Moses.

- 3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Moses had granted the two and a half tribes their inheritance east of the Jordan but had not granted the Levites an inheritance among the rest,

- 4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for Joseph's descendants had become two tribes—Manasseh and Ephraim. The Levites received no share of the land but only towns to live in, with pasturelands for their flocks and herds.

- 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So the Israelites divided the land, just as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갈렙의 믿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 14:6-15

- 6 그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 7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 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 10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 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 12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 13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 14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 15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8

주일

길르앗의 용사
입다

삿 10:17-18 & 11:1-28

- 17 그 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When the Ammonites were called to arms and camped in Gilead, the Israelites assembled and camped at Mizpah.

- 18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The leaders of the people of Gilead said to each other, "Whoever will take the lead in attacking the Ammonites will be head over all who live in Gilead."

- 1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Jephthah the Gileadite was a mighty warrior. His father was Gilead; his mother was a prostitute.

- 2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Gilead's wife also bore him sons, and when they were grown up, they drove Jephthah away. "You are not going to get any inheritance in our family," they said, "because you are the son of another woman."

- 3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So Jephthah fled from his brothers and settled in the land of Tob, where a gang of scoundrels gathered around him and followed him.

- 4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Some time later, when the Ammonites were fighting against Israel,

- 5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 땅에 가서 the elders of Gilead went to get Jephthah from the land of Tob.

- 6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Come," they said, "be our commander, so we can fight the Ammonites."

- 7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Jephthah said to them, "Didn't you hate me and drive me from my father's house? Why do you come to me now, when you're in trouble?"

- 8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The elders of Gilead said to him, "Nevertheless, we are turning to you now; come with us to fight the Ammonites, and you will be head over all of us who live in Gilead."

- 9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Jephthah answered, "Suppose you take me back to fight the Ammonites and the LORD gives them to me—will I really be your head?"

- 10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The elders of Gilead replied, "The LORD is our witness; we will certainly do as you say."

- 11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So Jephthah went with the elders of Gilead, and the people made him head and commander over them. And he repeated all his words before the LORD in Mizpah.

- 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Then Jephthah sent messengers to the Ammonite king with the question: "What do you have against me that you have attacked my country?"

- 13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 달라 하니라

The king of the Ammonites answered Jephthah's messengers, "When Israel came up out of Egypt, they took away my land from the Arnon to the Jabbok, all the way to the Jordan. Now give it back peaceably."

- 14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Jephthah sent back messengers to the Ammonite king,

- 15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saying: "This is what Jephthah says: Israel did not take the land of Moab or the land of the Ammonites."

- 16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But when they came up out of Egypt, Israel went through the wilderness to the Red Sea and on to Kadesh.

- 17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Then Israel sent messengers to the king of Edom, saying, 'Give us permission to go through your country,' but the king of Edom would not listen. They sent also to the king of Moab, and he refused. So Israel stayed at Kadesh.

- 18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Next they traveled through the wilderness, skirted the lands of Edom and Moab, passed along the eastern side of the country of Moab, and camped on the other side of the Arnon. They did not enter the territory of Moab, for the Arnon was its border.

- 19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Then Israel sent messengers to Sihon king of the Amorites, who ruled in Heshbon, and said to him, 'Let us pass through your country to our own place.'

- 20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 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Sihon, however, did not trust Israel to pass through his territory. He mustered all his troops and encamped at Jahaz and fought with Israel.

- 21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Then the LORD, the God of Israel, gave Sihon and his whole army into Israel's hands, and they defeated them. Israel took over all the land of the Amorites who lived in that country,

- 22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capturing all of it from the Arnon to the Jabbok and from the desert to the Jordan.

- 2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 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나

"Now since the LORD, the God of Israel, has driven the Amorites out before his people Israel, what right have you to take it over?

- 24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
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
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Will you not take what your god Chemosh gives you?
Likewise, whatever the LORD our God has given us,
we will possess.

- 25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툼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Are you any better than Balak son of Zippor, king of
Moab? Did he ever quarrel with Israel or fight with
them?

-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 가에 있는 모든 성읍
에 거주한 지 삼백 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
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For three hundred years Israel occupied Heshbon,
Aroer, the surrounding settlements and all the towns
along the Arnon. Why didn't you retake them during
that time?

- 27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
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
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
였으나

I have not wronged you, but you are doing me
wrong by waging war against me. Let the LORD,
the Judge, decide the dispute this day between the
Israelites and the Ammonites."

- 28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
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The king of Ammon, however, paid no attention to
the message Jephthah sent him.

29

월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전 1:26-31

-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Brothers and sisters, think of what you were when you were called. Not many of you were wise by human standards; not many were influential; not many were of noble birth.

-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But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God chose the lowly things of this world and the despised things—and the things that are not—to nullify the things that are,

- 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so that no one may boast before him.

- 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It is because of him that you are in Christ Jesus, who has become for us wisdom from God—that is, our righteousness, holiness and redemption.

- 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Therefore, as it is written: "Let the one who boasts boast in the Lord."

믿음의 유산을 차지하는 자들

수 15:13-19

- 13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랴트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In accordance with the LORD's command to him, Joshua gave to Caleb son of Jephunneh a portion in Judah—Kiriath Arba, that is, Hebron. (Arba was the forefather of Anak.)

- 14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From Hebron Caleb drove out the three Anakites—Sheshai, Ahiman and Talmi, the sons of Anak.

- 15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트 세벨이라

From there he marched against the people living in Debir (formerly called Kiriath Sepher).

- 16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트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And Caleb said, "I will give my daughter Aksah in marriage to the man who attacks and captures Kiriath Sepher."

- 17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웃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Othniel son of Kenaz, Caleb's brother, took it; so Caleb gave his daughter Aksah to him in marriage.

- 18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One day when she came to Othniel, she urged him to ask her father for a field. When she got off her donkey, Caleb asked her, "What can I do for you?"

- 19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겔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She replied, "Do me a special favor. Since you have given me land in the Negev, give me also springs of water." So Caleb gave her the upper and lower spring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25.
09

순예배 가이드

01

1. 9월 셋째 주 (9/14-20)

계속되는 악순환 (삿 10:1-16)

2. 9월 넷째 주 (9/21-27)

길르앗의 용사 입다 (삿 10:17-18 & 11:1-28)

3. 10월 첫째 주 (9/28-10/4)

입다의 승리와 서원 이행 (삿 11:29-40)

03

[순예배 가이드] 9월 셋째 주(9/14-20)

계속되는 악순환

사사기 10:1-16

지난주 본문 요약 |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릴지니 (출 35:4-5 & 20-29)

모세는 이스라엘의 소유 중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드리라고 했고,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회막을 짓기 위한 모든 것들을 자원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 1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 2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이십삼 년 만에 죽으매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 3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 4 그에게 아들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삼십을 탔고 성읍 삼십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하봇야일이라 부르더라

5 야일이 죽으매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6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8 그 해에 그들이 요단 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9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10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관찰/해석

* **하봇야일(4절)**: '야일의 촌락(동네)'이라는 뜻으로, 본래 바산의 성읍들이었으나,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수 많은 마을을 정복한 뒤 붙인 지명입니다.

* **곤고(9절)**: '괴로움을 당하다'라는 뜻으로 포위되거나, 묶인 데 대한 불안감이나 어려움, 혹은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찰/해석

- 1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 12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 1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 14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 16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 **곤고(16절):** 9절의 '곤고'와는 다른 단어로, 마치 사람의 척추뼈와 같이 뼈대가 되는 것, '어려움과 문제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 **근심하시니라(16절):** 기대했던 것이 필요이상으로 시간이 더 길어질 때, 조금해지고 참기 어려운 마음을 뜻합니다.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계속되는 죄와 회개의 악순환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2.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의 용기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3. 문제의 근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근심케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뜻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사 10:16]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04

[순예배 가이드] 9월 넷째 주 (9/21-27)

길르앗의 용사 입다

사사기 10:17-18 & 11:1-28

지난주 본문 요약 | 계속되는 악순환 (삿 10:1-16)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죄악과 회개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진노사하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주셨고, 이스라엘은 또 다시 여호와와 구원을 부르짖으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 17 그 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 18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 1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 2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 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관찰/해석

- 3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 4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 5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 땅에 가서
- 6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 7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 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 8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 9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2절):** 한 가문의 법적인 권리(유산)를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 **잡류(3절):** ‘쓸모없는’이라는 뜻으로, 도덕적으로 불량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빈핍한 일종의 부랑자들, 불량배를 의미합니다.

관찰/해석

- 10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
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 11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
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 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
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 13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
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
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
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 달
라 하니라
- 14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 15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
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
지 아니하였느니라
- 16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관찰/해석

- 17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
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
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 18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
르논 저쪽에 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
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
였으며
- 19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 20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
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
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 치고 이스라엘
을 치므로
- 21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시
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
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 22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
였느니라

관찰/해석

- 2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 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나
- 24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 25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 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삼백 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 27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 28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 발락(25절):** 과거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바알브올을 숭배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 장본인으로, 음행과 우상숭배자의 대명사입니다.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큰 승리에 동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2. 삶의 매순간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입술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3. 우리의 진정한 큰 용사이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11:27]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01

[순예배 가이드] 10월 첫째 주(9/28-10/4)

입다의 승리와 서원 이행

사사기 11:29-40

지난주 본문 요약 | 길르앗 용사 입다 (삿 10:17-18&11:1-28)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자,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를 이스라엘의 장관으로 세웠고, 입다는 암몬 왕과 대적하며 심판하시는 여호와와 손에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29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30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관찰/해석

32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33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뮌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라

35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36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 이다 하니라

* **서원하다(30절):** '맹세하다'라는 뜻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결과와 함께 신에게 종교적인 약속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찰/해석

37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38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39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습이 되어

40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2.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또한 주님과 약속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3.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 드림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11: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개인기도제목 - 1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2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3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4주차

[illegible]

2025.
09

뉴젠 여름성경학교 간증

1. 미취학부 (영아부/유아부/유치부)
2. 학령기 (아동부/유년부/초등부)
3. 청소년부 (중등부/고등부)
4. EM (Kids/Junior/YEM)

02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이지혜J 성도 (N강남공동체 / 영아1부 이도운 어머니)



성경학교 전, 가정 성경학교 기도챌린지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도운이를 깊이 만나 주세요. 우리 도운이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이가 되게 주세요!’라고 아이와 함께 기도를 하며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기도와 기대로 준비한 이번 성경학교는 더욱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부터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하나가 얼마나 알차고 재미있던지, 또 무더운 날씨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에도 더욱더 감사하고, 아직 어린아이들이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시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교회를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계속 해서 눈물로 터져 나오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동안 저희 도운이는 어린이집을 가는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안 가고 성경학교에 가고 싶다고 해서 등원길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엄마도, 아이도 잊지 못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모든 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부모

김인수B 성도 (S강남공동체 / 영아2부 김하성A 아버지)



저희 아들 하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난청으로 태어나, 조용한 환경에서는 소리를 잘 구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유효한 소리를 잘分辨하지 못해 힘들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성경학교 때는 하성이를 참석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하성이는 꾸준히 영아부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집보다 야기학교와 예배를 더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시간에 울동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그저 앉천히 부모의 품에 앉아 있었지만 늘 교회에 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경학교에는 꼭 하성이를 데리고 가기로 지난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제안으로 저는 이번 성경학교 때 아빠 찬양팀을 서게 되었고 일주일 전부터 저 때마다 율동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하성이가 “No라고 말해요. 다니엘처럼~”이라며 찬양을 따라 부르고 율동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 인물인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저희 부부가 하성이를 위해 늘 기도하던 내용과 같아서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은 힘과 권력, 경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와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하성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길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부모인 저희가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는 하루였지만 그 은혜는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하성이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을 따르면서도 하루 종일 찬양을 불렀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할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찬양을 부르며,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해 주세요”라고 옆드려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면 부담을 느끼시는 하성이 할아버지께서 25개월 된 어린 손주가 그러니 웃으며 받아들이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이 이 작은 아이를 통해 영혼 구원의 물꼬를 트실 거라는 믿음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난청인 아이가 시끄러운 환경에서 잘 듣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하성이는 찬양과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누리며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학교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섬겨주셨던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귀한 섬김 덕분에 아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부모인 저희는 지친 일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심령을 깨우고, 아이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70명의 다니엘

김은혜P 청년 (청년2부 / 유아1부 교사)



2025년 여름 성경학교가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반짝반짝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처음 들었을 때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교회 유아부 여름성경학교에서 70인의 다니엘을 세우실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는 한 홍 목사님의 말씀처럼 2025년 유아부 여름성경학교라는 한 챕터를 위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셨다는 믿음으로 성경학교 준비 과정에 임했습니다. 전도사님과 리더십이 모여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코너와 소그룹을 준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 주셔서 머리를 모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유아부 여름성경학교에서는 ‘다니엘 팝업북을 뽐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식탁에 스티커를 붙여서 멋진 채식 한 상을 만들어냈고,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입체 사자 곁에 있는 다니엘을 직접 움직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채식과 예배 생활로 반짝반짝 빛나

난 것을 빛나는 모자와 옷, 신발을 직접 옷 입히기 활동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킨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새겼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퀄리티의 팝업북을 만들기 위해서 30명이 넘는 유아부 교사들은 설 없이 가위와 풀로 작업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조금씩 모양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선생님들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사님은 학부모 참관 예배에서 말씀 구절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다니엘의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 예배를 통해 70명의 다니엘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을 옹호하는 데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자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한 챕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뉴젠의 다니엘들, 세 친구들

석채원 성도 (N강남공동체 / 유치2부 교사)



올해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전도사님들은 앞에서 진두지휘 하시며, 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맡은 바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읽고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성경학교가 아무런 사고 없이 아름답고 즐겁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라도록 귀에 쫄쫄 들어오는 설교로 아이들의 영혼을 먹이셨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그룹 활동과 코너활동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전도사님들이 써주신 대본으로 선생님들과 연극과 인형극을 준비하여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세 친구 중 한 명

을 연기하던 도중,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왕의 엄포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어’라고 외치며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울컥했는데, 내 옆에 하나님께 뜻을 정한 친구들이 있음에,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강한 공동체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교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원, 자녀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옳은 길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과 그 품에 안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라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섬김과 나눔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크나큰 은혜이고 늘 입술에 감사할 노래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뉴젠의 다니엘들, 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제 마음에 초대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총 놀이를 할 때 친구들이랑 놀아서 좋았고, 전도사님이라 선생님을 물총으로 쏘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최이든 어린이 (뉴젠 아동부)



하나님! 저희가 여름성경학교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미있는 활동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름성경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 배웠어요. 하나님! 저희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서연A 어린이 (뉴젠 아동부)



하나님, 우리가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동안에 해가 짹짹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치지 않고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예지 어린이 (뉴젠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말씀에서 들은 것과 같이, 다니엘이 무엇을 골라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른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은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든 신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해서 절을 안 하고 풀무불에 들어간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조하람 어린이 (뉴젠 아동부)



저는 여름성경학교 때 연극 이야기, 코너학습 등등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또 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섬길래요! 저도 진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있어서 같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제 곁에 계셔서 주셔서 행복했어요.

심하온 어린이 (뉴젠 아동부)





하나님 만나고 싶은 설렌 마음으로 여름성경학교에 갔어요.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둘째날 저녁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좋았어요. 특히 찬양을 할 때 너무 좋았어요.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번 예배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여름성경학교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안전하게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기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황의재 어린이 (뉴젠 유년부)



저는 여름성경학교에 오기 전에 신도 나고 떨렸어요. 친구들과 같이 자게 되는 기대감에 신이 났지만,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게 되어 떨리기도 했어요. 여름성경학교에서 친구들과 예배하고 신나게 노는 게 가장 즐거웠어요. 특히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무대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처럼! 저는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거예요. 이거는 꼭 놓칠 수 없는 성경학교! 재미있는 걸 합니다! 꼭 오세요! 일 년에 한번 밖에 없는 여름성경학교!

권민유 어린이 (뉴젠 유년부)



저는 여름성경학교에서 찬양을 할 때,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조용하게 찬양했는데, 점점 신나 저서 제가 조절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찬양도 크게 불려지고 춤도 저절로 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와락 껴안아주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눈물이 나며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회 갈 때나 학교 갈 때,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김다은A 어린이 (뉴젠 유년부)



예배 시간에 기도와 찬양을 하며 은혜받을 때 기쁨이 넘쳤어요. 제가 은혜를 받을 때 뭔가 이상하고 누군가 저를 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눈을 다시 감았는데 누가 만지는 느낌이 계속 났어요. 그래서 또 눈을 떴는데도 주변에 친구들과 선생님 밖에 없었어요. 신기하고 궁금했어요. 누가 제 마음속에 '뽕'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제 머리가 에어컨처럼 시원해지는 느낌이 났어요. 수련회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신기해서 또 가고 싶어요.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임진A 어린이 (뉴젠 유년부)



제가 여름성경학교에서 만난 하나님은 '눈물의 하나님'입니다. 둘째날 저녁집회 때, 찬양을 하기 전, 전도사님께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에 정말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싶어 졌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할렙거리며 찬양하는데, 마지막 찬양에서 가사를 이해하며 눈물이 났었습니다. 말씀 후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할 때마다 평평 울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하나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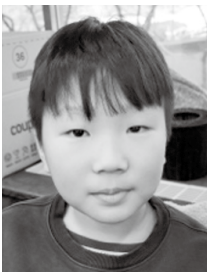
박서현A 어린이 (뉴젠 유년부)





이혜수A 어린이 (뉴젠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느껴져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뜻깊었던 시간은 저녁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설교 말씀과 선생님들의 간증을 기도에 담으며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하며 깨끗한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말씀은 다니엘 3장 17-18절 말씀이었는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금신상에 끝까지 절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잘 실감이 나지 않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마음에 썩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이 되자 다니엘과 친구들의 선택이 얼마나 용기 있고 대단한 것이었는지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과는 비교도 안되지만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것,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 서서 기도하거나 앉아서 기도하는 것 등등... 예배자로서 당연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괜히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옆 친구가 하면 그저 따라 하는 추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작은 제스처도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사님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고 일러 주실 때 비로소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니 갈수록 쉬워졌고, 후에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끼리 왜 부끄러워하고 망설였는지 후회가 되기도 하며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배우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고난이 닥쳐올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강하준 어린이 (뉴젠 초등부)

이번 수련회에 오게 된 건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모든 일정을 다 안전하게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날 저녁집회 때 기도를 정말 뜨겁게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난 수련회까지는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뿐인데, 이번 수련회는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고 축복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찾아오셨구나!” 저는 그때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정말 더 만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아인A 어린이 (뉴젠 초등부)

처음 수련회를 갈 때에는 진지하게 하나님만 만나려고 하면서도 “내 친구들은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하며 걱정했는데 와서 정작 예배드리고 놀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이 생기고 동시에 하나님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특별하게 남기고 추억할 수 있게 계획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조원들을 만났을 때 저는 좀 불만을 품었었습니다. 특히 서로 의견이 달라 충돌할 때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밤 저녁예배 때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연은 없다고 하셨다”는 말과 기도시간 때 ‘조원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에 회개하고 조원들을 위해 통성으로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위해 축복을 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둘째 날 밤 저녁예배였습니다. 살면서 제가 앞으로 그렇게까지 울며 간절하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순간이 더 생길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첫날밤에는 둘째 날 밤만큼 강렬하게 말씀이 와닿거나 울리지 않았는데, 둘째 날에는 천로역정 코너학습(2L 생수병 2병을 가방에 넣고 둘레/언덕길 걷기) 후 예수님의 희생이 전보다 몇 백배는 더 값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저녁 예배 말씀도 정말 삶에 필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었어서 수련회 기도시간 때 은혜가 훨씬 많고 넘쳤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까지 오열하며 눈물, 콧물을 먹으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옆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니 훨씬 자유롭고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 “다니엘 임팩트”의 주인공 다니엘처럼 저도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다짐했습니다. 수련회에서 배운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2박 3일의 모든 일정에 함께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박시우 학생 (뉴젠 중등부)

지난 겨울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는 제 신앙의 방향을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던 제가, 이번 여름수련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그 믿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참석했습니다.

첫날 개회예배에서 찬양팀으로 무대에 섰을 때, 중등부가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으로 가득해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후 예배와 프로그램 속에서 중등 1·2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이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임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다니엘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그의 믿음,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하루 세 번 기도하던 끈기는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처럼, 저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 QT 시간에는 조원들과 각자가 마음에 새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묵상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저녁집회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제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고,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제 안에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도를 더욱 깊이 심어 주었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결단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며, 날마다 그분을 더 깊이 찾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황민서 학생 (뉴젠 중등부)

저는 2025년도 여름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사건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저녁 집회 때 예배를 하고 마지막 찬양을 드릴 때 안에서 용기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 저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습관처럼 엎드려 기도드렸던 것처럼 저도 기도하는 것에 습관을 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둘째 날 했던 기독교적 세계관 특강에서 미디어 속에 숨어 있는 의미에 대해 알게 되어 제가 듣는 노래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아민 학생 (뉴젠 중등부)

이번 수련회는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여한 중등부 수련회였습니다. 조 리더를 맡게 되면서 ‘3학년이면 후배들을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의 부담감이 생겨 괜히 속상하고 눈물까지 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자리에서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음 날 아침 선생님들의 따뜻한 위로로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께 화개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동안 있었던 이성훈 목사님의 기독교 세계관 특강은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게 했고, 말씀과 찬양의 시간은 제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열게 했습니다. 특히 저녁집회에서 다 함께 부른 찬양 속에서, 가사 한 줄 한 줄이 기도가 되어 눈물이 났고, 설교 말씀을 통해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새로운교회는 매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곳입니다.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짧은 2박 3일이었지만 사랑과 도움을 아낌없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인도해 주신 전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제 마음에 오래 남을,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김화평 학생 (뉴젠 중등부)

이번 수련회는 재밌었고 동시에 은혜도 받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마음에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수련회를 매번 같이 오던 친구가 사정상 못 와서 아쉬웠지만 말입니다. 이런 마음은 모두 전도사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설교가 큰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번, 저 저번 수련회도 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응답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이제 3학년이기에 중등부 마지막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를 매번 가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가 수련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만약 수련회에 갔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고 해서 수련회에 가지 않는 건 정말 아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큼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만약 제 생각대로 안된다고 해도 주님의 계획은 더 크고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집회 때는 저에 대해 감동받았습니다. 찢림과 교만과 아픔 등 아주 많은 감동이 한꺼번에 몰려와 다 기도할 수 없고 모든 회개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번 수련회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놀이도 하고 기독교적 세계관 특강도 들었습니다. 특강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여러 대중문화에 대해 제한하진 않지만 그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는 저에 대한 감동이 아닌 남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이었습니 다. 1학년들을 위해 둥글게 모인 기도의 자리에서 동생이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동생에게 다가가 열심히 동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집회 후 한 찬양은 다 함께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제가 진짜 은혜의 강물 속에 있다고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중등부 마지막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끝맺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 중등부 여름수련회



▲ 고등부 여름수련회



이종훈G 학생 (뉴젠 고등부)

이번 수련회에 올 때 오기 싫고 귀찮았는데, 친구들에게 수련회 가자고 설득 당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막상 오니까 여기서라도 주님을 못 만나면 제 인생이 너무 망가질 것 같아서 첫날부터 은혜받으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태어나서 기도, 찬양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은혜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주님은 가까이 계셨고 저를 계속 두 팔 벌려 안아주시려고 했는데 그동안 외면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주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거의 했던 말은 “이제 더 이상 죄와 함께 하지 않고 참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입니다. 이 말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니 모든 것이 감사해지고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에 정말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 괴로웠지만 주님을 찾지 않았습다. 하지만 주님께 털어놓으니 이제 저의 죄를 사하셨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은혜로웠습니다. 찬양, 설교, 강의,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이렇게 크게 다가왔던 적은 처음이었고 난생처음 느껴보는 울컥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자녀이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저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은혜롭고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수련회였고 제가 오게끔 해주신 전도사님, 친구들, 주님 모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기회가 되면 선발대로 가서 조장도 해보고 싶고 더 오래 머물러서 은혜받고 제가 제일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전지연 학생 (뉴젠 고등부)

고등학교에서의 1학기가 지나가고 나서 여름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중간고사 때 전교 1등도 해보는 등 1학기는 꽤나 순조로웠지만 최근의 저에게 남아있던 감정은 뿌듯함, 기대됨 같은 것들이 아닌 허무함과 무기력함 뿐이었습니다. 학업문제로 부모님과 크게 다투기도 했고, 오래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목표나 꿈, 비전 등 저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 전혀 없었고, 부모님의 권유로 공부하는 것은 질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기에 큰 망설임 없이 제 공부 시간을 포기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내의 갈등과 학업 슬럼프 때문에 자존감도 매우 낮았고, 비전이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부르셔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일 텐데 왜 나는 비전도 꿈도 없지?” 이 질문이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첫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 무기력하고 불안해서 두렵습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 주세요. 그러나 첫날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저녁 집회 전에 저의 우울함은 하늘을 찔렀고, 저는 이 집회에 있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이라는 생각에 1층에 숨어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을 때, 말씀에는 그 해답이 있다.”라고 해주신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라 용기를 내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답을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와 연극에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따른 것이다.” 이걸 듣고 보니, 제 무기력함은 핑계로 밖에 안 보였습니다. 두려워서 못하겠냐? 무기력해진다? 그렇다고 제가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한 찬양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주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라는 구절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주실 거라는 것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깊이 재회할 수 있었고, 진짜 1시간은 넘게 울부짖었습니다. 진짜 저에게 위로를 해주는 예배는 해봤어도 동기부여가 되는 예배는 처음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받는 수련회였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에어바운스와 연극이 가장 좋았어요.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해요. 정말 즐거웠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Shining Star 의지인이 되겠습니다.

황의진 어린이 (뉴젠 Kids)



예배도 즐겁게 드리고, 재밌게 놀고 가방 만들기도 했습니다. 코너학습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보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나경 어린이 (뉴젠 Kids)



성경학교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일기! 재미있는 성경학교를 다녀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감사할 더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씻고 마시고 공부하고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김다빈 어린이 (뉴젠 Kids)

누나가 5학년 수련회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을 때는 안 믿었었지만 진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찬양도 열심히 하게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도 교감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가 재미있게 활동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원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았고, 특히 기도회 시간에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신 게 너무 인상에 남았습니다. 다음에 오면 또 이렇게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김태오A 어린이 (뉴젠 Jr.)

2박 3일이 너무 짧게 느껴졌지만 방탈출과 물놀이, 활동들이 재미있었고 특히 이상하게 늦게 하는 저녁 집회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는 하나님이 진짜 오신 것 같았습니다. 짧아서 아쉬웠지만 성령 충만한 성경학교인 것 같습니다.



배준환 어린이 (뉴젠 Jr.)

저는 여름성경학교에 와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는 다니엘의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애들과 있는 게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 시간도 더 늘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가사 의미도 생각하고 설교에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니엘처럼 올바른 일을 행하고 싶습니다. 저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지온 어린이 (뉴젠 Jr.)



Rachel 주하늘 학생 (뉴젠 YEM)

When I first signed up for the YEM summer retreat, I was full of expectations. After my confirmation ceremony, I was truly looking forward to have a deeper encounter with God. There were moments when I felt hesitant about going, but God reminded me of how He worked throughout my life and that it is impossible to start the new semester without Him. In the weeks leading up to retreat, God helped me prepare my heart to focus on him through prayer.

Once I arrived at the retreat, I had no regrets at all. The retreat was really powerful and full of blessings. Even on the first day of night worship, I felt a strong connection with Holy Spirit and His love. I kept praying, asking God to show me everlasting purpose of life and help me understand who God really is. While worshiping, God constantly reminded me that I belonged to him and that He will take care of all my circumstances and decisions. Lately, I have been feeling fearful and anxious because I had no motivation to study or plan out my life unlike other friends. It felt like I wasn't good enough to survive in this world. However, while I was praying, God called my name and said He truly loves me. I cried tears of joy and hope. I never imagined that God will approach me like that. I could feel that God has a big plan for my life and great things he wants to accomplish through me.

I was so delighted to have intimate moments with the Holy Spirit. I was deeply thankful for His presence, which continued in our small groups. After worship, we gathered in small groups to share our testimonies. God had touched each one of us, and every testimony shared in our group was touching and powerful. From this retreat, I realized that God wants me to have faith in Him and to look forward to all the success He will bring into my life. And from now, I will continue to walk with God for the rest of my life.

이번 수련회를 신청하며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입교식 이후, 저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망설여지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제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새 학기를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수련회 전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향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수련회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정말 큰 은혜와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첫날부터 성령님과 그분의 사랑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제 모든 상황과 결정들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최근,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공부나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을 보며 많이 두렵고 걱정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 이름을 불러 주시며,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쁨과 소망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나주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시며,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소그룹 나눔 시간까지 이어졌던 성령님의 임재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 사람을 만나주셨고, 나눈 모든 간증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허락해 주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앞으로도,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Seine Kim 김세인C 학생 (뉴젠 YEM)

In this retreat, instead of asking God for blessings I tried to thank Him through prayer for all the blessings I have already received. I tried to strengthen the bond between God by asking to help me seek Him not only in troubled times but also in times of joy. Also, in this retreat I got to know more about everyone especially through small group activities. From people I didn't know or people I knew but not that well, we were able share our prayers and pray for each other as well. I think that even though I was there for a short time, it was such a meaningful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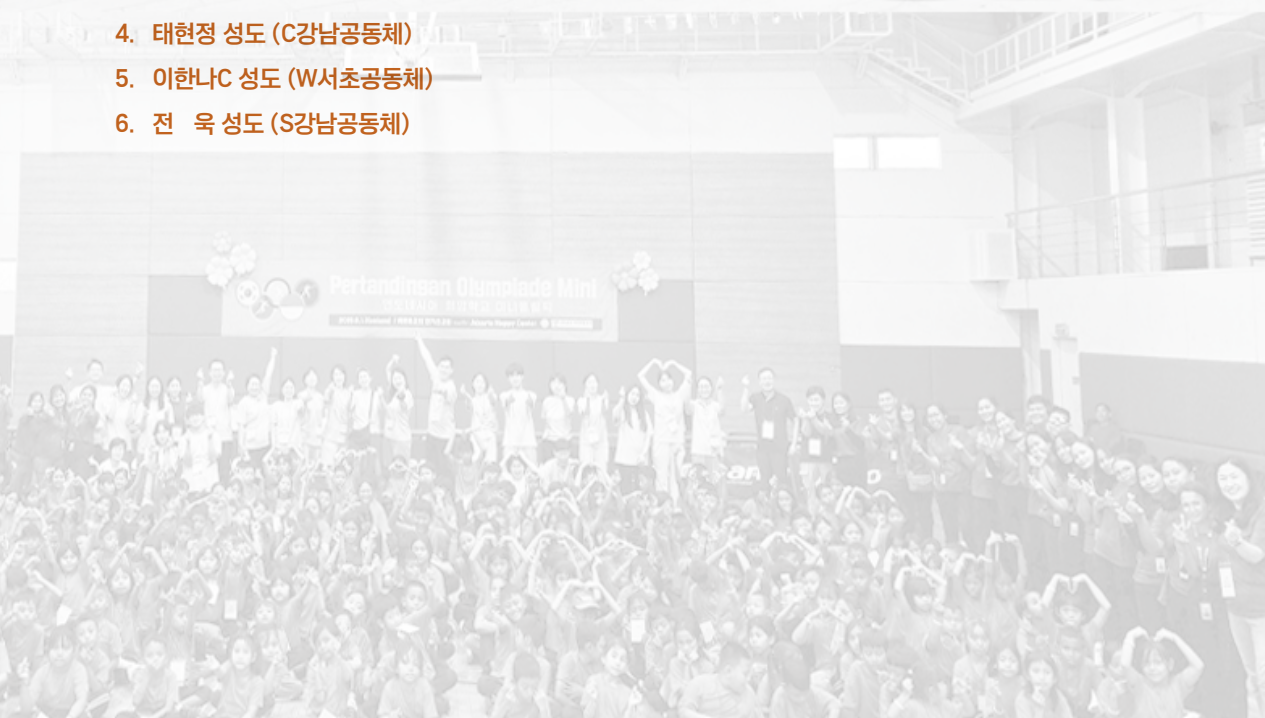
이번 수련회 때 저는 하나님께 축복을 더 구하는 대신 제가 이미 받은 축복들에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번 수련회 소그룹 활동들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친구들, 알고 지냈지만 잘 알지는 못했던 친구들과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5.
09

제주/인도네시아 아웃리치

03

1. 남충우 성도 (강북공동체)
2. 이진영A 권사 (C강남공동체)
3. 안수경A 집사 (C강남공동체)
4. 태현정 성도 (C강남공동체)
5. 이한나C 성도 (W서초공동체)
6. 전 욱 성도 (S강남공동체)



가족과 함께한 믿음의 업그레이드 시즌

남충우 성도 (강북공동체)



새로운교회는 제 작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며 교회 안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해 주었습니다. 매 주일 교회를

오가며 나 중심의 신앙과 만족을 이어갔다면 이번 제주선교를 통해 새로운교회가 지향하는 영적 항공모함의 보냄 받은 군대로 나아가 이루신 승리를 확인하는 사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준비모임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춘기 아들은 경기 수준의 반응으로 조별 준비모임은 시작도 못하고 로비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모르는 지역에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선교한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준비 모임과 중등부 수련회를 통해 주님은 아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 주셨습니다. 뉴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제주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선교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준비하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 도착 후 시작한 노방전도 사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주는 빼어난 경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선하고 여유가 넘칠 것 같았지만 푸르던 바다가 한순간에 젓빛으로 뒤집어지는 대자연의 위력을 눈앞에서 경험하며 느끼는 두려움을 우상신을 경배하는 행위로 위안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다로 둘러 쌓인 폐쇄적인 섬 문화는 집단에서

예외를 잘 허락하지 않는 영적으로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서투른 입술과 언어로 견고한 바위에 노크하는 정도의 노방 전도 후에 선교팀이 하나 되어 울동과 찬양, 음악회를 위해 준비할 때 찬양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며 전도 때 만났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오시는 것들을 보며 이미 주님이 일하셨고,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악회에 연로하신 주민 분들이 앞자리를 메우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의 음악을 듣고 손뼉 치며 함께 하고 있는 장면이 60여 명이 채 안 되는 성도를 가진 땅에는 기적이자, 큰 변화라며 오열하며 우셨던 저청중앙교회 성도님의 간증이 주님의 목소리처럼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 각 가정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작은 손은 아론의 지팡이처럼 능력을 가져올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제주선교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함께 참석한 아내와 딸, 아들이 제주선교를 통해 믿음 안에 한마음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신앙의 멘토 역할을 자청해 주신 청소년 수련회 팀과 몸과 맘을 던져 주민들을 섬기시는 모든 팀원들과 함께함을 허락해 주신 교회와 모든 리더십에 갚을 길 없을 큰 배려를 받고 큰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것을 기뻐 받으시고 써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주에서 무엇을 보여주실까

이진영A 권사 (C강남공동체)



이번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주에서 무엇을 보여주실까”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중보기도 팀장님이 올려준 기도

제목과 제주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카드는 제주를 품고 이해하며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주가 가진 고유의 문화와 자연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무속신앙, 그리고 그 땅이 가진 아픔들에 대해 무관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제주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먼저 제주를 품고 기도한 시간들이 감사했습니다. 서귀포 강변교회는 유명한 올레시장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된 일정은 청소년 여름 수련회와 목사님이 그동안 전도해 온 시장 상인분들 전도와 섬김이었습니다. 그간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열심히 상인분들을 섬겨 오셨는지 느껴졌습니다. 절에 다니는 분도 목사님의 열심에 감동되어 나눠주는 전도지를 꼼꼼히 읽어보신다고 하셔서 그분 마음에 복음이 스며들길 기도했습니다.

저는 도시락과 시장 전도를 담당하게 되어 올레시장에 나가 복음 팔찌를 활용한 전도

를 하다 보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두 분을 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함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름 수련회 집회에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 40년도 더 전에 시골 교회로 수련회 갔던 저의 시간들과 오버랩되며 지금의 저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많은 분들의 섬김으로 잘 성장해 온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앞으로 모든 시간들을 이끌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섬김의 기쁨으로 한마음이 되어 서로 배려하며 즐겁게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었던 도시락팀원들과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주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현지 목사님들의 열심과 눈물을 보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주를 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새로운 제주선교팀의 섬김을 기뻐하실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과 제주선교팀 목사님들과 리더십과 함께한 전도사님, 장로님들 모든 팀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드온 300 용사를 남기다

안수경A 집사 (C강남공동체)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는 빈민 사역과 청소년 사역, 두 가지 사역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담당할 사랑팀에 배정되어 기획 초기부터 함께하

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점차 사역의 방향이 구체화되었고, 선교사님과의 소통을 통해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사랑의 빛 학교(Sekolah Sinar Kasih)' 청소년들(중1~고3)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련회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빛' 초중고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도 함께 준비되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선생님들의 소명을 다시 일깨우고, 크리스천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Taman Bukit Palem Resort에 도착한 아이들은 우리 사랑팀의 환영 속에서 밝은 표정으로 군용 트럭에서 내렸고,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준비된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더욱 열리는 것이 눈에 보였고, 저녁 집회 때는 약 100명의 청소년들과 20명이 넘는 현지 교사들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기차를 만들어 강당을 누비며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이슬람 국가라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저의 선입

견이 깨어지는 시간이었고, 집회 첫날부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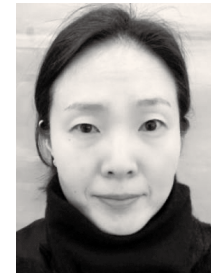
복음 중심의 네 가지 (사영리, 기도, QT, 성경 암송) 신앙 훈련 프로그램들은, 수련회 동안 받은 은혜가 일상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는 그 열매가 아이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맺히리라 믿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는 생전 처음으로 리조트 풀장에 와본다는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비가 와서 덜덜 떨면서도 아이들은 실내로 들어가기를 거부할 만큼 물놀이에 푹 빠져 있었고, 그런 아이들을 보며 잔한 마음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했고, 많은 아이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고 그들에게 주님의 비전과 소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찬양 위십과 우리 팀이 준비한 야광봉 위십으로 수련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고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기드온의 300 용사를 세우는 동시에, 우리 팀원 모두가 그 용사로 부름 받는 거룩한 헌신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태현정 성도 (C강남공동체)



분주한 삶과 여러 핑계 속에 선교를 계속 미루다가 올해 드디어 첫 선교에 나서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를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는 제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측해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인데, 선교는 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출발 2주 전, 선교지를 아예 바꾸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준비하던 캄보디아에서는 섬길 역할이 뚜렷했지만, 갑자기 바뀐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준비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역지로 가는 길에 역수같이 비가 쏟아졌지만 사역지에 도착할 때마다 비를 그치게 하였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정확히 채워주셨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선교팀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였고, 세수식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다른 준비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진정 세상의 빛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3일간의 모든 사역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인도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쓰레기더미 속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가면서도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워 가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한 저희 팀까지 따뜻하게 보살피시는 선교사님의 섬김 또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선교사님께서 나누신 간증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내과 진료 중 통역 담당자가 없어 직접 통역을 하시며, 선생님들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잠을 못 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왜 의료선교팀을 보내셨을까 기도하며 보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육체적 고통을 알아보지 못했음에 눈물로 회개하시는 모습, 그 깊은 사랑을 보며 저의 알팍한 사랑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향한 선교사님의 사랑과 헌신,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깨달은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亨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선교사님의 사랑과 섬김,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고자 합니다. 겉모습만 사랑하는 척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나C 성도 (W서초공동체)



선교 떠나는 첫날 비행기 안에서, 바로 가족들이 보고 싶어 저서 사진첩을 보고, 오랜만에 혼자 멀리 떠나는 긴장감 속에서 배탈이 난 채로 그리

상태가 좋지 않은 첫날이 지나고, 드디어 아이들을 맞이하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텐션이 너무 잘 맞는 룸메이트를 만나 신나게 아침을 열고 교회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선교사님의 특강 말씀에서 16년 전에 아무도 없는 오지로 들어가 한 명을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다 보면 여러 명이 되어 그중 한 가정이 열려서 거기서 예배하다 보면 땅을 가진 자가 땅을 내어놓고 거기서 교회를 지어 예배를 드리고, 또 거처를 옮기어서 한 명을 전도하고 사랑해 주고, 같은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셨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곧이어 선교사님이 온몸의 세포까지 다 끌어올려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라는 외침에 저는 머리를 세게 맞은 것처럼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간 생각해 온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저는 사랑이 나를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남들보다 좀 덜 판단하면서 듣고, 더 이

해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 왔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되도록 들어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온 맘과 뜻과 힘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완전하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쁜 눈망울에 밝은 미소를 가진 아이들을 맞이하니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이 아이들을 사랑의 빛 학교 안에서 얼마나 큰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 오셨는지 느껴졌고,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싶으셨는지..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두 분이 왜 그렇게 목이 메셨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오후 프로그램을 마치고 저녁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환상의 콜라보로 한국/인도네시아어 통역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어지는 기도회에서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왜 그런지 모를 절실함에 눈이 통통 붓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선교 내내 아이들이 이 땅에서 기드온의 300 용사로 서게 해 달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인도네시아 안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용사로 바로 서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주역들로 바로 서도록, 악한 세상의 어둠이 이 아이들을 틈타지 않도록 절실하게 기

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사람으로 바로 선다면 얼마나 기쁠까.. 저는 잠깐 이 아이들을 보지만 선교사님들과 교사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 천국에선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질까.. 가늠도 안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첫날 집회 때 키보드로 특송을 올려드리는 기회가 주어져서 키보드 세팅하는 시간에 현지 찬양팀인 멜기세덱 찬양팀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날 찬양인도한 형제님이 마지막날 폐회 예배 때 키보드로 같이 찬양을 하자는 제의를 하여서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으로 동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에 용기가 나면서, 지난 몇 달간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부 때 찬양팀을 오래 하면서 예배시간의 그 뜨거운 마음을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들어 그것이 그리워져서 ‘아- 찬양팀이랑 세션 맞춰서 찬양하고 싶다.’라고 몇 번 혼자 얘기하고 기도도 살짝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도 듣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도 약간 예배에서 소외된 남학생들까지도 다 챙겨서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

을 어렵듯이 알았습니다. 너무 울어서 매일 눈이 통통 붓고 바로 짠 음식을 먹어서 얼굴이 두배로 커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셋째 날 폐회 예배 때 멜기세덱 찬양팀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저의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저의 마음 전부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 너무 찢어지기도 하고, 그동안 머리로만 대충 이 정도 선만 넘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성도의 모양만을 지켜온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선교를 와서 하나님이 계속 제 지경을 넓히시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많은 기준에 부합하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삶의 모양새를 유지하기에 바빠서, 가족들과도 적당히 사이좋은 척, 직장에서도 적당히 친절하 척, 교회에서도 적당히 믿음 좋은 척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의 삶이란 진심으로 온 맘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하는 삶이구나.. 그리고 저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물의 작별인사를 마치고 살가웠던 팀원들과도 헤어지고 다시 조용한 집에서 이 간증문을 쓰면서 계속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 그리고 제가 만난 인도네시아 아이들보다 웃음이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세상에서 켈 맛있는 새로운교회 목사님들과 선교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던 아웃리치

전 옥 성도 (S강남공동체)



한 달 여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인도네시아로 출발, 처음으로 혼자 가는 선교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해 보

겠다는 기도로 다독였습니다.

중보팀에서 이름으로만 뵈었던 선교사님들을 직접 뵈고, 듣기만 하던 빈민촌 교육 사역과 밥퍼 사역을 함께 해보면서 선교사님의 기록한 매일의 삶이 경이롭기만 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항상 고난과 인내, 눈물의 기도만 떠올랐는데, 두 선교사님의 30여 년 간의 사역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빈민촌에 불고 있는 희망의 바람을 보게 되었고, 인도네시아를 향한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헌신이 사역 내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고른다면 단연코 첫 번째는 빈민촌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매일 진행하는 82구절 성경 암송 장면입니다. 저학년의 어린 학생까지도 성경 암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더듬지 않고 호흡하듯 편안하게 큰소리로 성경을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교육은 바로 이거지, 이것만 해도 되지!' 하고 경탄했고, 지금은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외우더라도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을 빚으로 인도하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늦게

하나님을 만나 아이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 항상 아쉬웠던 제 마음에 성경 구절 암송은 명쾌한 해답이 되었고, 우리 딸들과 즐겁게 성경 구절 암송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 가운데 제 생각을 내려놓고 무조건 신실한 주님을 믿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안, 염려가 많은 저는 빈민촌으로 도시락을 나눠주기 위해 출발하는 버스에서 퍼붓듯 쏟아지는 폭우에 낙담했었지만, 여기는 선교지라는 생각에 주님이 굿주린 사람들을 모른척하지 않으실 테니 비를 그치게 해 주실 것임을 그냥 믿었습니다! 속으로 외치며 도착 5분 전까지도 계속 내리는 비에도 주님이 하실 것이라며 두근두근 기대했고, 사역 장소에는 비가 오지 않아 마른땅을 밟을 때 할렐루야! 역시 주님! 을 속으로 외치며 도시락을 온전히 나누어 주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지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육체적 힘겨움을 경험했지만, 제 속의 주님을 바라보는 영이 너무나도 경절해지고, 순수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리가 되는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니 은혜의 자리를 구했던 스스로를 칭찬해 보며 내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교의 자리를 다시 기대해 봅니다.



2025.
09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 소개:

다비다자매회

04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소개

다비다자매회를 소개합니다!

싱글맘들이
‘함께’ 날아오르는
다비다자매회

기러기들이 먼 여정을 위해 브이(V) 자 대형으로 함께 날아가는 것을 ‘안항(雁行)’이라고 합니다. 앞선 기러기들이 날개를 칠 때마다 만들어지는 상승기류는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나 쉽게 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끔 알 수 없는 이유로 V자 대형에서 이탈하는 기러기가 나타나지만, 곧 공기의 저항을 느끼고 원래 대형으로 돌아옵니다. 만일 앞에서 인도하는 대장 기러기가 지치면 스스로 대형 뒤로 물러서고, 그 뒤를 따르던 기러기들이 앞으로 나와 V자 대형과 속도를 유지합니다.

험한 세상을 홀로 날아서 완주하기엔 너무 힘겹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날아간다면 훨씬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별이나 이혼 별거 등으로 홀로 된 여성들이 서로 의지하며 긴 인생길을 완주하도록 돕는 다비다자매회(회장 이주는 목사)는 안항하는 기러기 가족 같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4)” 인생의 완주를 하는 이들은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비다자매회
창립목적

다비다자매회의 창립자인 김혜란 목사는 1989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 홀로 된 어려움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혼자된 자매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또 직장 안에 있는 홀로 된 여성들을 만나 함께 울어주고 어려운 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명절, 성탄절엔 함께 식사했고 남편 기일에 외로운 엄마들과 자녀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1994년 다비다자매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반대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은 희망의 모태였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절망 중에 희망을 갈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절망의 선물은 다비다자매회라는 싱글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동안 다비다자매회에는 수백 명이 거쳐서 갔고 현재 150여 명의 싱글맘이 아름다운 안항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네 번째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회에서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별모임, 강사들의 질문에 열정적으로 대답하는 반응, 자신의 슬픔과 내면의 이야기를 쏟아놓는 간증을 통해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돌아갈 땐 환한 얼굴로 갑니다. ‘나만 불행한 여자이고 사회에서 소외된 외톨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며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다비다자매회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주는 목사는 ‘고립’이 가장 위험하다며 ‘고립’의 반대말은 ‘함께’라고 말합니다. 봄과 가을엔 여행을 떠나고 여름휴가철이면 바캉스를 떠나지 못하는 싱글맘들을 위해 ‘싱글맘 캠프’를 개최해 온 가족이 함께 무더운 여름을 행복하게 지냅니다. 연말엔 연극과 음악회 참석 등으로 외로운 시간이 없이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비다자매회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머니 대상의 부모교육과 자녀들의 자조모임을 운영합니다. 자칫 방황하기 쉬운 청소년 자녀들의 꿈 찾기, 진로탐색을 돕고 있습니다. 교복 및 학용품 구입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문화행사, 해외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행 9:36)

다비다자매회는 성경에 소개된 다비다와 같이 홀로 지내지만 자신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살기 원하는 여인들의 모임입니다. 자신의 삶에서도 부족함이 많고 외롭지만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비다의 자녀도 함께 성장합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용돈을 아껴 기독교 봉사단체와 교회에 매월 작은 헌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달에 한번 멘토 선생님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커서 꼭 어려운 생활을 하는 멘티의 멘토가 되고 싶다는 결단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비다자매회의 사명

지금 한국 사회 안에는 사별과 급증하는 이혼으로 인해 싱글맘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싱글맘과 자녀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받음, 마음, 분노, 외로움, 죄책감입니다. 누군가는 모진 비바람에 앞에서 있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비다들은 울타리 없는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듯 외롭고 추운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청소년 자녀들과 힘겨루기를 하며 거친 세상을 홀로 헤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비다자매회를 통해 많은 싱글맘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가지고 회복과 치유를 넘어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며 연합하는 기쁨의 열매들이 맺히길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을 위한 Promised Land 특별새벽기도회



약속의 땅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주세요

일시 8월 26일-9월 13일 매주 화-토 오전 6시

장소 본당

강사 한 홍 담임목사

문의 이사무엘 목사, 카톡ID: saerounchurch

Wednesday Prayer Worship



9월 수요기도예배 은혜

9/3 김정현 목사

9/10 조은영 목사

9/17 강현구 목사

9/24 최지훈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2학기 공동체 개강예배

2025. 9. 9(화)-12(금), 오후 7:30

문의: 각 공동체 담당 목회자



새로운홀1(7층) | E강남
새로운홀2(6층) | S서초
S하우스 | 우면



새로운홀1(7층) | S강남
새로운홀2(6층) | E서초
S하우스 | W서초



새로운홀1(7층) | N강남
새로운홀2(6층) | N서초
S하우스 | C강남



새로운홀1(7층) | 강북
S하우스 | W강남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6길 56 삼준빌딩 3층